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by practicing virtue
can we purify our heart
and empty our mind.



01 2022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올해의 행동 지침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부처님 옆자리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경전을 읽는 자세

4. 법정 스님 잔소리

공부하는 데에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5. 법정 스님 친구들

빛자루

6.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선재동자가 묻는다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어떤 결심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9번 접어서 20쪽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 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음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탬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2년 1월 1일 발행, 통권 323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음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올해의 행동 지침

1월 2일(水)

간밤에도

월백 月白

설백 雪白

천지백 天地白!

아침 기온 -19° .

춥다.

대관령은 -17° 란다.

지난밤 문풍지 우는 소리에

자다가 깨다.

오두막에서는

몸놀림이 많아

어깨와 팔이

아프다.

PM 4 : 30.

-10°

춥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날날이 그 이름을 들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다.

내가 남에게 전한 은혜는 없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세상에 공것은 없다.

남은 세월 안에서 어떻게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

부질없는 회주(길상사)에서

떠난 것은

잘한 일 같다.

올해의 행동지침 써서 식탁 앞에 붙이다.

1. 과속 차로에서 탈피

-천천히 즐기면서

2. 아낌없이 나누라

-본래 무일물 本來無一物

삶의 종점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

3. 보다 따뜻하고 친절하라

-무엇이 부처이고 보살인지 시시로 살피라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부처님 옆자리

새해 첫날에 법정 스님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선물은? '부처님의 옆자리'입니다. 엄청난 선물이지요? 우리 모두가 부처님 바로 옆자리에 앉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디 한번 앉아 볼까요? 부처님 옆자리에 앉으면 과연 느낌일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소부小部 경전 여시어경如是語經 92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가령 어떤 비구가 내 옷자락을 잡고
내 뒤를 발자국마다 따르다 할지라도,
그가 욕망의 걱정을 품고 성난 마음을 품었거나
그릇된 소견을 지니고 게을러서 깨달음이 없다면,
그는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나는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그 비구는 법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법을 보지 못하는 자는
나를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이란,
부처님의 가르침도 되고 혹은 진리도 됩니다.
법을 보지 못하는 자는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앞에서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나를 보려거든 법을 보아라'는 부처님 가르침과 같은 말입니다.
경전은 계속됩니다.

“비구들이여,
또 어떤 비구가 내게서 백 일이 걸릴 만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애욕을 품지 않고 성내거나 그릇된 소견을 지니지 않으며 게으르지 않아 깨달음이 있다면,
그는 내 가까이 있는 것이고,
나는 그의 곁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법을 보고 있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집에 살더라도 뜻이 맞지 않으면 10만 8천 리입니다. 저 멀리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설사 10리 밖 천 리 밖에 산다 하더라도 뜻이 같으면 늘 함께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애욕을 품지 않고 성내거나 그릇된 소견을 지니지 않으며 게으르지 않아 깨달음이 있다면 그는 부처님 가까이 있고 부처님은 그의 곁에 있는 것과 같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부처님 옆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부처님 옆자리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앉기 바랍니다.

애욕을 품지 않는 마음자리
성내지 않는 마음자리
그릇된 소견을 지니지 않은 마음자리
게으르지 않아 깨달음이 있는 마음자리

늘 이곳에 앉아 살아가세요.
부처님 옆자리입니다.
얼마나 안락하고 향기롭습니까?

3. 법정 스님 따라하기

경전을 읽는 자세

법정 스님은 경전읽기 모임을 위해 《숫타니파타》를 우리 말로 옮겨 소개하면서 우리들이 경전을 읽는 자세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러고는 1989년경에 《깨달음》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는 것은 지식이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여유의 분별과 따짐을 넘어서서,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경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읽는가도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숫타니파타》에 나타나는 부정관不淨觀을 중심으로 경전을 읽는 자세에 대한 법정 스님 말씀을 전합니다.

《숫타니파타》

193 걷거나 서매, 혹은 앉고 눕거나 몸을 구부리고 또는 편다. 이것이 신체의 동작이다.

194 이 몸은 뼈와 힘줄로 연결되어 있고 내피(內皮)와 살과 살갗으로 덮여 있어,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다.

195 이 몸의 내부는 장과 위와 간장·방광·심장·폐장·신장·비장으로 가득 차 있다.

196 콧물 점액·진물·지방·피·관절액·담즙·기름이 있다.

197 또 이 몸의 아홉 구멍에서는 끊임없이 오물이 흘러나온다. 눈에서는 눈곱, 귀에서는 귀지.

*아홉 구멍은 양쪽 눈, 양쪽 귀, 양쪽 콧구멍, 입, 항문, 생식기를 가리킨다.

198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을 흘리고 가래를 뱉는다. 그리고 온몸에서는 땀과 때를 배설한다.

199 또 그 머리의 빈 곳(空洞)에는 뇌수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명(無明)에 이끌려서 이런 육신을 깨끗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200 또 죽어서 몸이 쓰러졌을 때에는 부어서 검푸르게 되고, 묘지에 버려져 친척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

201 개나 여우·늑대 벌레들이 파먹고,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날짐승이 쪼아 먹는다.

202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수행자는 깨달은 사람의 말 씀을 듣고 그것을 분명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는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203 “저 죽은 시체도 얼마 전까지는 살아 있는 내 몸뚱이와 같은 것이었다. 살아 있는 이 몸도 언젠가는 죽은 저 시체처럼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알고 안팎으로 몸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204 이 세상에서 애욕을 떠난 지혜로운 수행자는 죽지 않고 평안하고 멸하지 않고 열반의 경지에 도달해 있다.

205 인간의 이 육신은 부정하고 악취를 풍기므로 꽃이나 향으로 은폐되어 있다. 그렇지만 오물로 가득 차 있어 여기저기서 그것이 흘러나오고 있다.

206 이런 몸뚱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잘난 체 빼기거나 남을 깔본다면, 그는 소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겨울비가 내리고 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으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 음악보다 훨씬 마음을 즐겁고 순하게 다스려 준다. 흙과 나무들은 말이 없어도 생기에 차 있다. 발가벗은 나무의 숲에 안개가 서리나 뽀뽀해진 내 가슴에도 물기가 배어드는 것 같다.

한겨울에 내리는 비는 강추위 속에 훑날리는 눈보라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한결 부드럽고 촉촉하게 적셔 준다. 이러다가는 어디선가 매화와 동백이 꽃을 피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르겠다.

초기 불교가 분석적이라는 말은 그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다. 불타 석가모니는 세계와 인생에 대해서 투철한 관찰로써 있는 그대로를 보았고, 치밀한 분석으로써 대상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했다. 여기에서는 우리들 육신에 대해서 해부학적인 분석과 관찰을 시도하고 있다. 뼈와 힘줄로 엮어서 살갗으로 포장된 우리들 육신의 실상을 낱알이 해체하여 비정하리만큼 우리 앞에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과 해체의 의도는, 이 육신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4. 법정 스님 잔소리

공부하는 데에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다.

공부라는 것은 스님이나 신도들이 정진하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또 학생들이 공부하거나 스님들이 수행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공부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다. 장애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다 장애가 있다. 누구나 삶의 장애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한평생 살아간다는 것은 무수한 벽을 넘는 장애물 경주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를 헤치고 왔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탈이라는 게 뭘까?

그런 장애물을 넘어서 안팎으로 자유로워지고 홀가분해진 상태를 해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장애라는 것은 해탈에 이르는 디딤돌이고 발판이다. 그런 장애가 없으면 해탈도 있을 수 없다.

모든 게 다 필요한 존재다. 어떤 미생물이 되었건 이 우주에는 모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그런 미생물이나 벌레가 귀찮다고 해서 농약이나 강력한 살충제로 죽여 보라.

그 미생물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쇄 반응을 일으

켜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로운 것까지 모두 죽여 버리지 않나?

오늘날 우리가 겪는 생태계의 변화와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가 무엇인가?

전체적인 흐름과 조화를 망각한 채 부분에만 갇혀서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 아닌가?

지구가 인간의 그러한 행위를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래서 지구가 지진도 일으켰다가 불도 일으켰다가 하는 것이다.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마치 물것처럼 하도 귀찮게 하니깐 털어 내느라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지구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의 바탕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만 살고 떠날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영원히 존속되어야 할 생명의 바탕이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들어서 우리가 지구를 너무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이변을 겪게 되었다.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장애라는 것은 다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해탈의 길로 이어진 길목이기 때문에 장애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번뇌를 보리로 전환하고,

생사를 열반으로 전환하고,

고뇌를 기쁨으로 전환하라.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장애 없이는 해탈도 없다.

5. 법정 스님 친구들

빗자루

빗자루라고 쓰고 비짜루라고 읽는다.

짚을 묶어 만든 이 비로 방도 쓸고 마루도 쓸고 선반에 쌓인 먼지도 쓸고 방에 들어온 벌레도 다치지 않게 살살 쓸어 내보냈다.
어떤 이가 묻는다.

사람이 본래 부처라는데 정진은 또 왜 합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부처다.

맑고 텅 비어서 더할 것도 없고 덜 것도 없다.

그러나 사바세계에 살면서

매일매일 먼지가 쌓인다. 그래서

매일매일 먼지를 쓸어 내지 않으면

맑은 마음은 탁해지고 탁해진 마음에는

욕심이 끼고 욕심이 낀 마음은 성을 내고

성을 낸 마음은 어두워진다.

그러면 부처도 보이지 않는다.

빗자루로 매일매일 쓸어서 맑게 하면

자기 자신의 부처를 만날 수 있다.

우리 자신의 부처를 찾아 주는 고마운 친구,

매일 한 번은 그를 만나

몸과 마음을 쓸어 주자.



6.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선재동자가 묻는다

선재동자가 휴사 청신녀에게 묻는다.
“성자께서 위없는 보리심을 발한 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가 답한다.

“나는 과거 연등불 燃燈佛에게서 범행 梵行을 닦아
공경 공양하면서 법문을 들었고,
그 전에는 이구불 離垢佛에게 출가해
도를 배우고 바른 법을 받아 지냈다.
또 그 전에는 묘당불 妙幢佛에게서,
그 전에는 승수미불 勝須彌佛에게서,
그 전에는 연화덕장불 蓮華德藏佛에게서,
그 전에는 비로자나불에게서,
그 전에는 보안불 普眼佛에게서,
그 전에는 범수불 梵壽佛에게서,
또 그 전에는 바루나천불 婆樓邪天佛에게서
배웠던 일을 기억한다.
나는 과거 무량겁에 한량없는 생을 두고
이와 같이 차례로 36항하사 恒河沙 부처님 계신 데서
모두 받들어 섬기면서, 공경 공양하며
법을 듣고 받아 지니고
청정한 계행을 닦던 일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 전의 일은
부처님의 지혜로나 알 것이지
지금의 나로서는
헤아릴 수 없다.

선재동자여,
보살의 초발심이 한량없나니
법계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보살의 대비문 大悲門이 한량없나니
세간에 널리 들어가기 때문이며,
보살의 대원문 大願門이 한량없나니
시방 법계에 끝까지 이르기 때문이며,
보살의 대자문 大慈門이 한량없나니
중생에게 널리 드리우기 때문이며,
보살의 수행이 한량없나니
세계에서 모든 겁 동안에 닦아 익히기 때문이다.
또 보살의 삼매력이 한량없나니
보살도가 물러나지 않게 하기 때문이며,
보살의 총지력 總持力이 한량없나니
세간을 잘 지니기 때문이며,
보살의 지광력 智光力이 한량없나니
삼세 三世에 잘 증득해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 보살의 신통력이 한량없나니
모든 세계에 널리 나타나기 때문이며,
보살의 변재력이 한량없나니
한 음성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케 하기 때문이며,
보살의 청정한 몸이 한량없나니
부처님의 세계에 두루 하기 때문이다.”

선재동자가 물었다.

“성자시여, 얼마나 오래면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까?”

휴사가 답했다.

“보살은 한 중생을 가르치고 조복하기 위해

보리심을 발하지 않으며,
백 중생을 가르치고 조복하기 위해
보리심을 발하지 않는다.
또 말할 수 없이 많은(不可說不可說轉) 중생을
가르치고 조복하기 위해
보리심을 발하지도 않는다.
한 세계의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
보리심을 발하지 않으며,
또 말할 수 없이 많은 세계의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
보리심을 발하지도 않는다.
한 여래를 공양하기 위해
보리심을 발하지 않으며,
또 말할 수 없이 많은 여래를 공양하기 위해
보리심을 발하지도 않는다.
한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기 위해
보리심을 발하지 않으며,
또 말할 수 없이 많은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기 위해
보리심을 발하지도 않는다.
한 삼천大千세계의 티끌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기 위해
보리심을 발하지 않으며,
또 말할 수 없이 많은 삼천大千세계의
티끌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기 위해
보리심을 발하지도 않는다.
한 여래가 남기신 법을 머물러 지니기 위해
보리심을 발하지 않으며,
또 말할 수 없이 많은 여래가 남기신 법을
머물러 지니기 위해
보리심을 발하지도 않는다.
간략히 말하면,

한 부처님의 서원만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며,
한 불국도에만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며,
한 부처님의 회중(衆會)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며,
한 부처님의 법안法眼을 지니기 위해서가 아니다.
한 부처님의 법륜法輪을 굴리기 위해서가 아니며,
한 세계의 여러 겁劫의 차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다.
한 중생의 마음 바다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며,
한 중생의 근성 바다(根海)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며,
한 중생의 업 바다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며,
한 중생의 수행 바다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며,
한 중생의 번뇌 바다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 세계의 티끌수 중생의
번뇌 습기習氣 바다를 알기 위해서
보리심을 발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다
교화하고 조복하고자 보리심을 발하며,
부처님을 남김없이 다
섬기고 공양하고자 보리심을 발하며,
불국토를 남김없이 다
깨끗이 하고자 보리심을 발한다.
모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남김없이 다
보호하고 지니고자 보리심을 발하며,
여래의 서원을 남김없이 다
성취하고자 보리심을 발하며,
불국토에 남김없이 모두 가게 하고자
보리심을 발하며,
부처님의 회중에 남김없이 다 들어가고자
보리심을 발하며,

세계의 여러 겁의 차례를 남김없이
알고자 보리심을 발한다.
중생의 마음 바다를 남김없이 다
알고자 보리심을 발하며,
중생의 근성 바다를 남김없이 다
알고자 보리심을 발하며,
중생의 업 바다를 남김없이 다
알고자 보리심을 발하며,
중생의 수행 바다를 남김없이 다
알고자 보리심을 발하며,
중생의 번뇌 바다를 남김없이 다
알고자 보리심을 발하며,
중생의 번뇌 습기를 남김없이 다
빼내고자 보리심을 발한다.
선재동자여,
간추려 말하면 보살은
이와 같은 백만 이승지 방편의 행을
다하기 위해 보리심을 발한다.
보살행은 모든 법에 두루 들어가 다
증득하기 때문이며,
모든 세계에 두루 들어가 다 깨끗이 하기 때문이다.
선재동자여, 그러므로 세계를 깨끗이 해 마치면
내 서원도 다할 것이고,
중생의 번뇌 습기를 뽑아 마치면
내 서원도 가득 채워질 것이다.”

선재동자가 말했다.
“이 해탈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해탈의 이름은
근심을 떠난 편안한 당(離憂安隱幢)이라 한다.”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어떤 결심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 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기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고뇌하는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나의 영혼을 맑게 해 줍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를 비우고 버리는 일!

비웠을 때 울림이 있습니다.

텅빈 충만이 진공묘유眞空妙有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후원 회원 가입 및 후원 방법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 모임으로 100% 회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개인의 형편에 따라 정기 비 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온라인, 지로)까지 스스로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글이 담긴 알차고 소박한 월간지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원이 부담되는 분은 연간 최소 경비(1만 원 이상)만 후원해 주시면 월간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사무국 방문, 팩스, 전자 우편, 우편을 통해 가입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후원금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유난히도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아낌없는 마음으로 본회의 취지에 공감하며 후원에 주신 회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한 해 동안 후원해 주신 소중한 후원금에 대해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하오니, 꼭 확인하시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은 2022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온라인(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분께서는 사무국으로 유선(02-741-4696) 또는 이메일(clean94@hanmail.net)로 신청하시면 우편, 팩스,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을 정확하게 발급받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개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본 모임에 등록된 내역과 일치해야 하므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간혹 익명으로 후원하신 경우 후원 내역이 불일치할 수 있으니, 문의 사항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전화 주세요.(02-741-4696/총무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연말 김장 전달하였습니다

중앙 모임에서는 연말을 맞아 지난해 11월 25일 우리 주변의 어려

운 이웃(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쪽방촌)에게 자비의 김장을 나누었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농가식품(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에서 김장을 구매하여 460여 가정에 각 10Kg씩 전달하였고, 관내 경로당, 어린이 공부방에도 전달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십시일반 후원금으로 전달된 김장김치가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길상사 창건 24주년 기념 법회 원만회향

지난해 12월 12일(일) 사시예불 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창건 24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법회를 한다 - 현화 - 이사장 덕조 스님 축하말씀 - 주지 덕일 스님의 감사 인사 말씀 - 길상사 모범 신도와 맑고 향기롭게 모범 봉사자에게 수여하는 감사패 시상 - 길상사 재무 보고 - 합창단 음성 공양 - 사홍서원 - 공지사향 순서로 간소하지만 여법하게 봉행하였습니다. 특히 본회 이사장 덕조 스님과 길상사 주지 덕일 스님은 법정 어른스님께서 생전 길상사를 창건하신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고, 길상화 보살님의 무주상 보시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2년간 이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점점 혼탁해져 가는 이 사회에서 길상사가 맑고 청정한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마음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후원 회원 탁상 달력 및 법정 스님 저서 《오두막 편지》 2차 우편 발송 안내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 중앙 모임은 10월 말 기준 연간 3만 원 이상 후원해 주신 회원님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2022년 탁상 달력과 《오두막 편지》를 11월 말에 발송해드렸습니다.

이후 문의 전화로 도서 판매 요청과 탁상 달력 추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함께 동봉하여 보내 드린 《오두막 편지》는 출판사의 부도로 인해 본회에서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재고 도서로 신간이 아닌 점, 수량의 한정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탁상 달력이 추가로 필요하신 분의 경우 무분별한 배포와 발송을 방지하고자 1개당 4,000원의 후원금을 받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후원이 없었지만, 11월에서 12월 말까지 3만 원 이상 후원하신 분과 우편물을 수신 거부하여 받지 못한 분 중 요청하신 분에게는 1월 중순에 별도로 발송해 드립니다.

길상사 벽걸이 달력이 필요하신 분은 길상사 증무실에서 수시로 배포하고 있으므로, 길상사에 방문하여 받아 가시면 됩니다.(벽달력의 우편 발송은 불가하며, 길상사 증무실로 문의하십시오.)

중앙 모임 임기제 대의원 추천 및 지원받습니다.

본회 정관과 중앙 모임 운영 규칙에 따라 본회 활동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책임감과 봉사 정신으로 동참할 수 있는 회원으로, 2022년 초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부터 2024년 초 정기 대의원총회 전일까지 활동할 임기제 대의원을 추천 및 지원받습니다.

본회 사업과 회계에 대한 심의, 의결 및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한 논의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세무사, 회계사, 수행과 NGO활동, 사회봉사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합니다.

중앙 모임 가입이 만 3개월 이상이고, 연 5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선거권(추천)이 있으며, 연 10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피선거권(지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거나 사무국으로 방문하여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방문

추천 및 지원 기간 : 2022년 1월 28일까지

1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4일(화)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법정 스님 책 읽기 필사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 오전 10시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정기 재정 후원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인도 다람 살라잠양(jamyang) 바구니 스님 학교 후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처음 봉사 활동에 참여하시거나 하는 분은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봉사 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정기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 조리 활동(10시~13시), 배달 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 (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정기 방문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 재료 다듬기, 청소 등

● 모임 ● 시민서로배움터 :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 지원 사업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년 봉사자 수시 모집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봉사 활동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모임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 오전 11시

● 후원 활동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년 봉사자 수시 모집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봉사 활동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모임 ● 독서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노래 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천연 화장품 만들기 : 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만들기

● 후원 활동 ● 장학 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02)3672-5945/전송:(02)3672-5947

신정 합동차례

일시: 1월 1일(토) 오전 9시 50분

장소: 극락전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임인년 맞이 촛불 기원 법회)

일시: 1월 1일(토) 오후 6시~8시 30분

장소: 극락전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기도입니다.

개인 축원입니다.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기도는 극락전, 설법전 및 극락전 마당 천막에 제한된 인원만큼 분산하시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길상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중계되며 개인별 발원 내용을 자막으로 올려 드립니다.

초하루기도 / 법회

일시: 1월 3일(월) 오전 9시 50분

장소: 극락전

성도재일

일시: 1월 10일(월) 오전 9시 50분

장소: 극락전

성도재일 철야기도

일시: 1월 9일(일) 오후 9시~1월 10일(월) 오전 4시

장소: 극락전

지장재일

일시: 1월 20일(목) 오전 9시 50분

장소: 지장전

관음재일

일시: 1월 26일(수) 오전 9시 50분

장소: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설 합동차례

일시: 2월 1일(화) 오전 9시 50분

장소: 극락전 (접수번호 1번~700번) / 설법전 (접수번호 701번부터)

입춘기도 및 삼재소멸 기도

일시: 2월 2일(수) 오전 9시 50분~2월 4일(금) 오전 9시 50분

장소: 극락전 / 삼재: (원숭이띠, 쥐띠, 용띠)

정초기도

일시: 2월 3일(목)~2월 9일(수) 오전 9시 50분

금강경 독송 정초칠일기도: 오후 2시

장소: 극락전

1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기도명 / 법회	날짜	시간	장소
신정 합동차례	1월 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1월 1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초하루 기도	1월 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1월 1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월 20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1월 2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오전 9시 50분 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오전 9시 50분 오후 6시	지장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